

민선4기 충청도정의 과제 -산업경제분야-

성윤현 | 충남대학교 교수

I. 서론

충남은 1995년 관선기를 접고 민선기로 전환한 이후 민선 제1,2기(1995-2002년)에서는 주민의 변영에 초점을 맞추고, 개성있는 충남 건설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민선 제3기(2003-2006년)에서는 인간, 지식, 문화로 집약되는 21세기 시대조류의 변화에 부응하여 '인본복지'와 '지식경영'을 도정의 기조로 설정하고, 21세기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일류 경쟁력 배양과 국가발전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자 노력해 왔다. 이를 위해 산업경제분야에서는 신성장동력산업을 선정·육성하고, 권역별, 테마별 관광산업을 육성하였으며 이러한 노력들은 어느 정도 실효성을 거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체제의 심화, 지식기반산업의 강조, 동북아경제권의 부상, 자립형 지방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 등 국내·외 환경이 지속적으로 변화함으로써 민선 제4기에서는 새로운 방향으로의 경제산업분야 정책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충남의 경제현황과 여건 변화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맞춰 민선4기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경제산업분야의 도정방향 및 주요 시책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II. 충남의 지역경제 현황 및 경제변화 추이

1. 충남의 지역경제 현황

충남의 지역내 총생산은 2000년 기준가적으로 1990년 15조에서 2004년 38조원으로 증가하였고, 전국대비 비중은 1990년 4.48%에서 2000년 5.19%로 증가하여 충남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또한, 충남의 산업구조는 2003년 현재 농림어업 9.6%, 광공업 40.7%, 서비스업이 49.6%로 나타나 농림어업의 비중은 크게 감소한 반면 광공업의 비중은 크게 증가하여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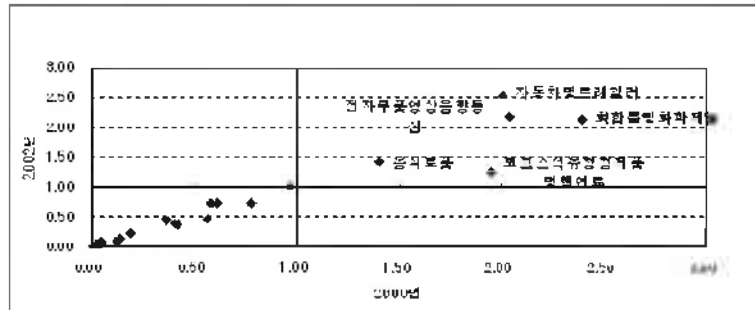
〈표 1〉 충남의 산업구조

(단위 : 억원, %)

구분	산업총생산				산업구성비		
	농림어업	광공업	서비스업	합계	농림어업	광공업	서비스업
1990	23,091	47,387	65,297	135,775	17.0	34.9	48.1
1995	26,540	52,522	108,564	187,626	14.1	28.0	57.9
2000	31,577	100,817	125,436	257,830	12.2	39.1	48.7
2003	29,679	125,518	152,849	308,047	9.6	40.7	49.6

주 : 2000년 기준 불변가격

이러한 변화는 서해안고속도로 개통, 정부고속철도 운행, 지역내 고속도로망 확충 등 대규모 SOC 시설이 정비됨으로써 충남의 기업 입지여건이 크게 개선되었고, 기업친화적 정책이 가시화되면서 충남의 산업구조가 단순 제조업에서 벗어나 21세기 한국경제를 선도하고 있는 전자정보산업, 자동차산업 등으로 재구성되고 있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그림 11〉 전국대비 충남의 업종특화 계수¹⁾

앞으로도, 충남은 인근의 대덕R&D특구 지정,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등 행정 과학의 중심으로 부각되고 있고, 대중국 교역 확장에 따라 중국진출의 전초기지로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평택당진항을 활용한 수출입기지가 정착되면 환황해경제권의 신산업벨트 중심지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1) 전국대비 충남의 업종특화 계수: '보다 크면 다른 지역보다 업종이 특화된 것'을 의미하고 1보다 적으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업종이 특화되지 않은 것을 나타낸다.

2. 지표로 본 충남경제의 변화

주요 경제지표의 동향을 전국평균과 비교해 보면, 충남의 실물경제는 모든 부문에서 뚜렷하게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생산 및 수출부문에서는 전국 평균수준을 크게 뛰어넘는 실적을 보여주고 있고 외자유치 부분에서도 투자실적이 점차 활발해짐을 보여주고 있다.

〈표 2〉 경제지표로 본 충남경제 변화

구분	2001년	주요 성과				
		누계	2002년	2003년	2004년	
산업생산(증가율)	1.1%		13.9%	17.7%	25.3%	
기업유지	업체(개)	632	2,007	860	665	482
	고용인원(명)	12,450	44,364	16,252	14,302	13,810
외자유치	건수	38	109	41	26	42
	금액(백만달러)	491	2,483	581	702	1,200
수출성과(억달러)	1.6	612	151	198	293	
사업체 종사자수(100명)	4,735		5,131	5,544	5,7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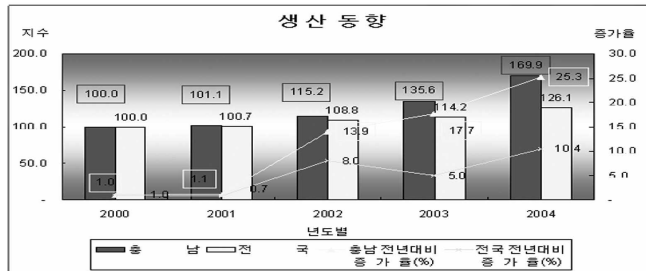
2002년에서 2004년에 걸쳐 충남의 기업유치는 총 2,007개 업체로 44,364명의 고용을 창출하였으며, 총 147건에 달하는 외자유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출액은 2001년 116억달러에서 2005년에는 335억달러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사업체 종사자수는 2001년 47만3,500명에서 2004년 57만9,000명으로 증가하였다.

생산증가율 및 수출증가율에서도 전국 평균치를 뛰어넘는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GRDP 역시 전국 평균 성장률을 상회하는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충남은 GRDP 지역별 구성비의 추이에 있어 2002년도에는 0.1% 포인트 상승하고, 2003년도에는 0.2% 포인트 상승하여 증가세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전국대비 생산부문 동향비교

2000년=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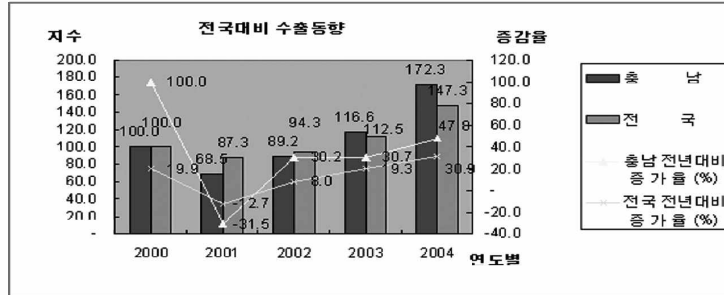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충남	100.0	101.1(1.1%)	115.2(13.9%)	135.6(17.7%)	169.9(25.3%)
전국	100.0	100.7(0.7%)	108.8(8.0%)	114.2(5.0%)	126.1(10.4%)



〈표 4〉 전국대비 수출부문 동향비교

2000년=100.0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충남	100.0	68.6(-31.4%)	89.2(30.0%)	116.6(30.7%)	172.3(47.8%)
전국	100.0	87.3(-12.7%)	94.3(8.0%)	112.5(9.3%)	147.3(30.9%)



〈표 5〉 지역내 총생산 구성비 추이

(단위: 10억원, %)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실수	구성비	실수	구성비	실수	구성비	실수	구성비
전국	577,977	100	620,905	100	685,946	100	727,605	100.0
서울	138,492	24.0	149,887	24.1	168,143	24.5	175,230	24.1
부산	33,810	5.9	37,658	6.1	40,193	5.9	42,616	5.9
대구	20,776	3.6	21,721	3.5	23,438	3.4	24,336	3.3
인천	26,291	4.5	29,255	4.7	33,392	4.9	34,009	4.8
광주	12,629	2.2	13,761	2.2	14,930	2.2	15,723	2.2
대전	13,559	2.3	14,416	2.3	16,046	2.3	17,134	2.4
울산	28,255	4.9	29,876	4.8	33,174	4.8	34,672	4.8
경기	111,593	19.3	120,931	19.4	132,773	19.3	139,934	19.2
강원	16,462	2.8	17,113	2.8	18,609	2.7	20,440	2.8
충북	19,521	3.4	20,044	3.2	21,500	3.1	22,845	3.1
충남	28,963	5.0	30,332	4.9	34,395	5.0	37,960	5.2
전북	18,978	3.3	19,997	3.2	21,279	3.1	22,266	3.1
전남	26,908	4.7	28,299	4.6	32,172	4.7	34,839	4.8
경북	38,446	6.7	40,658	6.6	44,021	6.4	49,291	6.8
경남	37,728	6.5	41,846	6.7	45,639	6.7	48,641	6.7
제주	5,289	0.9	5,591	0.9	6,392	0.9	6,738	0.9

III. 충남의 대외 환경변화와 전망

1. 세계적 여건의 변화와 전망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 및 아시아 신흥공업국(NIE's)의 대두로 한·중·일의 동북아 경제권은 세계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특히 한·중·일의 동북아 경제권은 유럽과 대륙으로 연결되고 있으며, 미국 등 북미대륙과도 바다로 연결되어 있는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으로 이 지역의 부각은 향후 우리나라의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진다. 더욱이 최근 급속도로 진전을 보이고 있는 긴 국간의 FTA는 동북아경제권의 강화와 더불어, 동북아경제권의 핵심적 위치에 자리하고 있는 충남의 역할을 더욱 증대시킬 것이다.

2. 국내적 여건의 변화와 전망

지금 우리는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라는 거대한 시대흐름 속에서 새로운 지식의 지속적 창출과 확산만이 국가생존을 가능케 하는 지식기반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또한 국가발전 및 성장의 동력이 중앙보다는 지방에 무게중심이 두어지는 신지역주의(new regionalism)경향이 대두되면서 국가발전전략의 패러다임이 「지방주도형·지방분권형」으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음을 복도할 수 있다. 즉 지역마다 성장 잠재력을 찾아내 이를 극대화시키는 특색화 전략을 펼쳐나갈 때 미소소 나라 전체의 발전도 가능하게 되는 새로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정부에서는 지방분권과 함께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의 주요 정책으로는 첫째, 수도권 과밀문제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 정치와 행정기능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옮기고, 둘째, 수도권 공공기관을 지방의 전략산업과 연계하여 집단 이주시켜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며, 셋째, 수도권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해 나감으로써 전국도가 고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 있다. 이러한 3대 국가균형발전정책은 서울중심의 1극 체제에서 다극체제로 국토구조를 개편하는 것으로서 전국 각 지역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특히 충남의 경우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로 대한민국의 정치·행정·문화의 중심으로서 크게 부각되고 있다. 또한 2004년 고속철도의 개통으로 인해 천안, 아산지역 등 충남 북부지역이 수도권지역으로 기능적으로 통합되는 시공간 수렴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충남이 맞고 있는 또 하나의 주요한 대내적 환경변화라고 할 수 있다.

IV. 지역경제의 성장을 위한 과제 및 도정방향

충청남도의 산업은 전반적으로 지역내 총생산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건실한 경제성장을 유지하고 있고, 단위 기업체의 규모 성장과 수출중심 구조로 기업체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동시에 산업구조도 서비스업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구조로 변화해 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서도 충남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와 대내외적인 환경의 변화로 인해 향후 충남의 발전을 위해서는 몇 가지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가 존재한다. 민선4기에서 고려해야 할 과제 및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산업구조가 제조업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농림어업 및 서비스업을 고부가가치화하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내에서 전통적으로 가장 큰 우위를 점하여 오던 농업부문이 DDA와 FTA 등 세계경제의 흐름과 함께 잦은 자연재해, 농축산물 가격파동, 토양오염과 가축질병 등 국내외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농업인구 또한 점차 고령화되면서 복지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농가의 소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저노동으로 가능한 농업의 고부가가치화가 시급하다. 서비스업의 경우에도 여전히 교육서비스 및 보건사회복지, 금융 및 보험서비스 등의 비중이 낮아, 지식중심사회로의 전환에 필요한 지식서비스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충남북부지역과 경부축을 중심으로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삼성전자의 디스플레이 산업 등 첨단산업이 집적화되는 가운데, 기업에서 상품의 시장성을 고려하여 요구하는 속도로 공장입지와 기반시설을 뒷받침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 공장입지 후보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민원과 외생적 토지투기가 겹치면서 경기도가 겪었던 개발의 난맥상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주시해야 할 부분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개발초기단계부터 지역주민의 참여를 확대시키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서로간의 신뢰를 확보해야만 한다.

셋째, 우리 충남은 우여곡절 끝에 당초 실행정수도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일부 변형되어 입지되었지만, 21세기 새로운 대한민국의 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우리 충남의 발전을 자동적으로 이끌어 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실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지역이 갖는 비교우위적 특성과 연계하여 발전전략을 미리 수립하여 대비하지 않는다면, 충남을 오히려 기형적으로 발전시키고 말 것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집단이 거주하는 도시가 될 것이고, 소득상위권에 속하는 계층의 30~40만명이 살아가는 도시라고 보아야 한다. 아울러 이 도시를 찾는 국내외 인사가 많아 인구의 유동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

넷째, 산업집적이 경부축과 북부축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지역 내에서의 경제력 격차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는 지역주민간의 반목을 확산시키고, 현 수도권 집중과 동일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따라서 경제발전축을 다변화시켜, 충남의 서북부축과 경부축선상에 있는 산업집적을 확산시켜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다섯째, 현재의 충남 경제성장의 요인이 외생적인 면에 치중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물론 충남도의 경제활성화 노력이 일정부분 충남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지만, 수도권 규제에 의한 성장이라는 부분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다. 외생적 요인에 의한 경제성장은 외생적 요인의 변화 혹은 한계에 따라서 언제든지 중단될 수 있으므로, 현재의 경제성장에 만족하지 말고, 혁신역량의 강화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여섯째, 충남의 현재 산업은 지식중심산업이긴 하나 세계적인 추세의 산업 라이프사이클상에서는 이미 성장후기에 들어서 있는 산업이다. 따라서 Cash-Cow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현재의 중심산업 육성과 더불어, 충남의 장래 경제를 이끌어갈 산업 즉 Star산업을 발굴 육성해야 한다.

일곱째, 충남의 총 연구개발투자액은 전국 총 투자비의 2.7%를 차지하여 충남도의 전국대비 부가가치 생산액 비율에 비하여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대학의 1인당 연구비 규모가 영세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지적재산의 출원 건수 등에 있어서도 전국 평균성장률에 미치지 못하여 충남의 혁신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연구개발 활동 및 혁신활동의 강화가 필요하다.

V. 추진 시책 및 주요개발 사업

세부추진 시책 및 주요개발 사업을 개관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지역별 특화산업의 육성

지역의 낙후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역특화 정책이 필요하다. 즉 지역에 맞는 산업을 집중·육성하고 특화함으로써 지역의 경쟁력을 유도해 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 지역에 맞는 연구기능 시설 건립 및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하고, 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주요 지역별로 천안·아산·당진 등 서북부권의 경우 반도체, 디스플레이, 디지털TV, 철강산업을, 서산·태안·보령·서천 등 서해안권의 경우에는 자동차부품산업, 예산·홍성권은 생명농업벤처지원센터

건립을 통한 농업바이오산업, 서천·부여·청양권의 경우에는 백제권종합개발 및 백제문화엑스포 등을 통한 문화관광산업, 공주·연기 등 행정중심복합도시권의 경우에는 문화산업클러스터의 지정을 통한 문화산업, 계룡·논산·금산권의 경우에는 실버산업 및 건강식품산업 등을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

2. 산업집적 강화 및 혁신클러스터화

지역산업의 지식기반화를 위하여 지역내에 분포하는 기존 제조업 및 지연산업의 지식기반화와 첨단지식기반 산업의 육성을 추진하며, 미래산업의 수요예측과 산업용지의 수급계획에 따른 산업별 집적화를 추진하고, 충남의 4대 전략산업의 집적추진과 이를 광역적으로 확대하는 전략산업의 혁신클러스터화를 추진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IT산업(디스플레이), 자동차산업,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연계된 행정·첨단 문화 산업으로 허브클러스터를 형성하며, 문화컨텐츠, 바이오, 관광산업의 중소 클러스터와 각 시·군 향토산업 클러스터를 허브와 연계하고, 권역내에 있는 허브클러스터인 오창과 대덕간의 연계를 강화함은 물론 수도권 및 해외 클러스터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3. 새로운 성장산업의 육성

소비자 수요의 지속적 변화와 후발 개상도상국과의 경쟁심화 등과 같은 여건변화로 인하여 기존 산업의 지식기반화에만 의존하여 지역경제의 장기적 발전을 도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정보통신산업 등 첨단 지식기반산업의 지역내 육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산업과 연관이 높은 분야에서부터 출발하여 지역산업 여건 및 가용자원 규모를 고려하여 지역별로 특화된 업종을 선정하여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충남의 전자정보, 자동차, 통신 등 텔레메틱스 산업의 기반이 되는 이업종간 기술융합이 진전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산업의 집적화를 통한 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환경보전을 위하여 무역규제를 포함하는 각종 환경협약이 체결되고, 환경목적의 달성을 위한 정책적 수단이 광범위하게 대두됨에 따라 산업의 성장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과 폐수를 적절히 처리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환경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국민의 환경에 대한 관심과 환경권 보장의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환경설비산업의 국내시장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1991년 8

천억원에서 2001년 5조원규모 성장, 한국은행이므로 환경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북부권의 산업집적지와 더불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이전으로 인해 기업 및 지원서비스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대할 것으로 전망되는 바, 관련 산업 및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4. 지역혁신 여건 조성 및 지역혁신체제 구축

지역의 혁신능력 제고는 기술경쟁시대의 중심명제가 될 것임이 틀림없다. 세계의 다른 지역에 비해 경쟁력을 지니기 위해서는 특정기업 중심의 연구개발이 아니라 지역내에 체화된 기술혁신기반의 강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대학과 산업현장의 연계를 강화하고 대학기술의 상용화 및 기업이전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의 강구가 필요하며, 기업기술지원 및 산학연 연계지원을 위한 거점시설의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내의 혁신분위기를 창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및 지원방안을 모색하며 지역내 정보체계 구축 등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5. 행복도시, 도청이전, R&D특구와 연계한 지역산업 육성

현재 충남은 연기·공주 일대에 행정복합도시의 건설, 홍성·예산으로의 도청 이전, 근접지역인 대전 유성의 R&D특구지정이라는 우호적 환경이 구축되어 있다. 따라서 이에 대응하는 적절한 정책을 통해 타 지역에서 누릴 수 없는 경제적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따라서 먼저 도청이전 지역에 대해서는 철저한 분석을 통해 지역에 걸맞고 충남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주력업종을 선정·육성함으로써 도청소재지가 갖는 잇점을 적극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R&D특구와 행정중심복합도시 사이에 국제비즈니스스타운을 건설함으로써 국제업무 기능을 확충하고, 다국적 기업 및 대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거점으로 삼아야 하며, 우호적인 외국인 투자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제화 수준을 제고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국제비즈니스스타운의 스포크 기능으로서 R&D특구와 행정중심복합도시 근교에 스마트 프로덕션 지구를 건설하는 것도 한 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공주 우성면 일대의 첨단 산업 물류단지 조성, 계룡시 입암산업단지내의 첨단 국방 산업단지 조성, 논산시의 기계 제조업 산업단지 조성, 그리고 금산군의 생명화학 산업단지 조성 등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